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
		배포일시	2017. 11. 8(수) 총 2매(본문1)	
담당 부서	행복주택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김근오, 사무관 이경민, 주무관 오요셉 • ☎ (044) 201-4514, 4515	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‘경쟁률 12대1넘는데…행복주택, 계약률은 76%’ 관련

- 서울리츠2호가 지난 3월에 공급한 행복주택(301호)의 계약률은 현재 76%이나 향후 예비입주자와 계약이 진행될 경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

* 서울지역 행복주택(총 7개 지구) 입주율 : 94.0%

- 현재 우리 부는 계약률 제고와 청약자 편의를 위해 행복주택의 **건본주택**(스마트시티홍보관 ‘더스마티움’내 소재, 서울 자곡동)을 **운영**하여 왔으며,
- 청년들의 전세금, 보증금 마련 시 **신용등급***과 관계없이 ‘버팀목대출’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
* 신용등급(1~10단계)은 관계없으나, 신용불량자는 제외

- 이외에도 예비입주자의 신속한 계약 체결 지원 등 계약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.

< 보도내용 (한겨레, 머니투데이, 11. 8) >

◆ “경쟁률 12대1 넘는데…행복주택, 계약률은 76% 왜>”

- 서울시가 지난3월 공급한 행복주택 301가구 청약 경쟁률은 12:1이었으나 계약률은 76%로 저조
- 미계약 사유는 ‘당첨아파트 불만’, ‘자금마련 어려움’, ‘묻지마 청약’ 등
- 개선위해 견본주택 운용, 전월세보증금 지원, 등 필요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정책과 이경민 사무관(☎ 044-201-451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